

다산포럼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케인스는 개인 입장에서서는 저축 증대가 자산의 증가와 미래 소득 증가를 가져오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을 증대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소비 감소에 의한 판매 부진으로 경기 침체를 악화시킨다는 ‘저축의 역설’(paradox of saving)을 주장했다. 한국의 가계 저축률은 2007년 5.1%에서 2015년 8.1%로 올라간 반면, GDP 대비 가계소비 비율은 같은 기간 50.8%에서 47.1%로 떨어져 외환위기 때 48.6%보다도 낮다. 기업 저축은 15.9%에서 18.9%로 증가했는데, GDP 대비 투자율은 32.9%에서 28.5%로 급락해 외환위기 때에 근접했다. 그동안 투자를 하락과 소비 침체에 따른 총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해 왔던 것은 수출의 증가였다. 외환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수출이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로 세계 수출시장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고,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

재정 정책의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았다

면 한국의 수출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침체에서 벗어 나려면 수요 부족이라는 저축의 역설을 극복해야 하는데, 저축이 급속히 증가하는 또 다른 부문이 있다. 총저축 대비 사회보장기금 저축 비율은 1991년 2.6%에서 2015년 7.9%로 상승했다. 사회보장기금의 저축 급증은 국민연금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 현황을 보면 국내채권 비중은 2008년 77.4%에서 2015년 52.5%로 감소한 반면, 국내주식 비중은 같은 기간 12%에서 18.5%로 증가했다. 해외 투자 비중도 6.3%에서 17.9%로 급증했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침체로 주식 발행시장 기능이 위축되고 있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는 사실상 주식 유통 시장에 대한 투자나 다름없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와 해외투자 비중 증가는 국민연금 자산 운용이 국내 투자로 연결되는 성격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민연금의 저축이 급증하면서 ‘한국인 저축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IMF는 한국이 상당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을 쓸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한국의 재정 여력이 노르웨이 다음으로 세계 2위라고 평가한다. 한국의 재정 여력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고 국민연금이라는

공공부문 저축이 있기 때문이다. IMF의 국제재정통계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채는 국가 채무에서 제외하는 게 원칙이다. 국민연금 자산은 가입자 자산이면서 동시에 정부 부문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기준과 달리 국민연금 보유 국채를 국가채무 통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정부 발표 국가채무 통계는 IMF의 국제재정통계 기준보다 더 높게 잡은 수치다. 한국은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2032년부터 인구 감소라는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정부 재정 수입 증가는 둔화되는 반면, 복지 지출은 계속 증가한다. 국제 기준 재정수지는 국민연금 저축을 정부 수입에 포함시키는 통합재정수지인데, 202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한국경제가 지금은 상당한 재정 여력이 있다고 평가받지만, 그 기간이 5~6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저출산이 초래할 잠재성장을 하락을 막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많다. 내가 보기에 국제 발행으로 해야 할 우선 사업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 확대다.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1990년 24.8세, 2000년 26.5세에서 2015

년 30세로 올라갔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초혼 연령이 급속히 올라간 나라가 있는 지 모르겠다. 저출산 대책으로 아동수당 확대가 논의되고 있지만, 아이를 낳을지 말지 고민하는 부부들은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이다. 고용 불안정, 주거 문제로 결혼할 엄두도 못 내는 청년들 문제가 더 시급하다.

고용 안정은 제공하지 못해도 최소한 주거 안정은 제공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정부가 출자와 재정 용자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적자라는 것은 토지주택공사의 엄살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사업에 재정 용자를 지원한 후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한 적어 한 번도 없었고, 출자 지원으로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 자산이 있기 때문에 국제 발행으로 이 사업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기존 저소득층이 주 지원 대상이어서 임대료가 시세의 50% 수준으로 저렴하지만, 추가 확대할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주택은 시세의 70~80%로 공급해도 되기 때문에 수익성도 더 좋을 것이다.

‘큰 정부는 비효율적’이라는 이념에 사로잡혀 건설 경기 부양은 물론 청년 주거 안정을 통해 저출산 대책 효과도 있는데다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도 높이는 이런 정책을 기피한다면 그런 정부는 바뀔야 한다.

社說

대통령 측 탄핵 지연작전 좌시해선 안 된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이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추가 신청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 기일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방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39명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 측의 이 같은 무더기 증인 신청에 따라 일단 탄핵 심판 결론이 이틀 안에 내려지기는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박한철 한재소장의 퇴임(31일) 이후에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39명의 증인 신청 명단에는 조응천 전 공직자강비서관(현 민주당 의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안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현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강석훈 경제수석비서관, 유인봉 전 국정기획수석비서관(현 새누리당 의원),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현 프랑스 대사)도 포함돼 있

다.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39명을 탄핵 심판정으로 불러 직접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노골적인 재판 지연작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현재의 선고가 늦어질수록 박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결론 시점에 따라 박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를 피해 갈 수도 있다. 탄핵 심판이 장기화할수록 잃었던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기대도 하고 있을 작하다. 그러나 안 될 일이다. 박한철 소장은 증인 신청 취지를 본 뒤 이들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를 오는 25일 판단하기로 했다. 저들은 어떻게 해서든 선고를 늦추려 하겠지만 탄핵 심판을 늦추려는 대통령의 지연책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현재는 헌정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문화 단체장 공백 사태 장기화되지 않도록

광주·전남 주요 문화예술기관장의 무더기 공백 사태가 빚어져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광주시 인적 쇠신 여파로 광주문화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문화기관장이 공석중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양우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가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지역의 4대 문화기관장이 동시에 공백 사태를 맞게 되는 상황을 앞두고 있다. 박양우 대표이사는 최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교수로서 중앙대 예술대학원을 장기간 비울 수 없어 3월 개강에 맞춰 복귀하려 한다”며 오는 2월께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창현 광주 시장의 인적 쇠신 방침에 따라 지난 20일자로 사표가 수리된 광주문화재단 수장도 공석 상태다.

무려 1년 6개월간 공석으로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선임은 선임권자인 조운선 문화부 장관이 지난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

로 구속된 후 장관직을 사퇴하면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문화부 장관 공백은 이미 장기화된 한콘진 원장 선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한콘진은 지난해 11월10일 이른바 ‘차은택 사단’의 일원으로 알려진 송성각 전 원장이 광고업체 지분 강탈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현재 공석이다. 문제는 이들 문화기관장의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당분간 대행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문화재단 대표의 경우 시의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공모에서부터 선임까지 최소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화기관장의 공석이 조직의 안정과 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한다는 점은 두 말 할 나위 없다. 따라서 정부와 광주시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해 하루 빨리 공모 절차에 들어가 능장 선임으로 인한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정춘 특·특



송재영
작가·필명 '타라재이'

타임워프와 기억상실, 공간이동은 드라마의 단골 소재이다. 시간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을 위협으로부터 구하고, 현실과 가상세계를 넘나들며 악당을 처단한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기억을 지우는 능력을 가진 주인공이 있는가 하면, 해어진 연인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사랑한 기억을 삭제하기도 한다. 익숙한 소재임에도, 시간과 공간, 기억을 소재로 한 이야기는 언제나 호기심을 자극하고, 몰입하게 만든다. 왜일까? 삶을 반영하는 동시에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일 것이다. 이야기는 등장인물의 성격과 배경, 사건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전개된다. 경우의 수를 무진장 가진 주사위처럼 말이다. 우리가 세상에 온 이유는 누군가의 주

우리의 기억은 당신의 밤보다 아름답다

사위 때문이었다. 생의 목적과 의도를 모른 채 세상에 던져진 존재는 오래지않아 자신의 주사위를 선택하고, 던지고, 책임지는 법을 배운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으로 남기며, 생이라는 것을 살아낸다. 그러나 기억은 오히려 없다. 자의적 선택과 판단, 감정으로 재편집 된다. 흐려지고, 덧대어지며 사라지기도 한다. 어쩌다 떠오른 기억 때문에 과거로 소환되고, 낯익은 공간으로 이동한다.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며 기억 ‘변이판’을 만들어 본다. 이쯤 되면, 우리의 관념세계가 판타지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 판타지 주인공처럼 신기한 능력이 생기면 어떻게? 불행하고 슬픈 기억을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일까, 벌일까.

나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억을 들고, 그것을 글로 적는 ‘기억보관소’ 프로젝트를 해왔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글을 쓰고 싶어서 시작한 프로젝트였다. 단제에 소속되거나 지위를 받지 않았으므로 찝찝하게 소일거리 하듯 이어가고 있다. 처음에는 대인예술아시장에서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페이스북

이나 블로그로 프로젝트를 알리고,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개인이 하는 프로젝트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 단체, 기관 덕분에 작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모사업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광주 시민의 기억을 수집했다. 올해는 광주 중앙도서관 앞에 위치한 A4 갤러리에 기억보관소를 테마로 전시를 했다. 지금까지 약 100여명 이상의 기억을 수집했다. “당신의 기억을 보관해 드려요.” 기억보관소를 열고, ‘메모리키퍼’라고 새겨진 명함을 건넬던 때가 떠오른다. “글쎄요, 저는 보관하고 싶은 기억보다 있고 싶은 기억이 더 많습니다.” 자주 돌아오던 대답이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답하곤 했다. “있고 싶은 기억도 보관해 드려요. 기억보관소에 기억을 맡기면 마음이 가벼워지거든요.” 재밌고 신기한 프로젝트라며 명함을 받아가는 사람이 많았지만, 실제로 연락이 오는 경우는 드물었다. 행복한 순간은 짧고, 견뎌야 하는 시간은 길다. 행복한 기억은 쉽게 휘발되고, 고통스러운 기억은 유난히 무거워 버린다.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에게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구구절절 털어놓을 이유가 없

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려는 것은 단순히 기억을 기록하는 일이 아니다. 해방이다. 과거에 멈춰있는 자기로부터, 부정하고 싶던 자아로부터, 상처받은 기억으로부터, 흘러가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나는 당신의 기억을 글로 보관하면서 ‘지금’을 찾아주고 싶다. 매순간 주사위를 던지고, 선택하고, 책임지며 묵묵히 삶을 견뎌온 ‘당신’을 응원하고 싶다. 단 한 순간도 당신이 아닌 적이 없던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싶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저 편안해지기를 바란다. 기억을 나누다는 것은 친구가 되는 일이다. 행복한 기억이든, 불행한 기억이든, 인생의 한 조각을 나눔으로 우리는 관계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억은 당신이 밤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다. 기억을 부정하거나 삭제하는 대신, 공유하고 위로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계속해서 광주 시민의 희로애락을 기억보관소에 담아낼 것이다. 그동안 기억의 방에 메모리키퍼로 초대해 나간 참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내일 광주에 받은 위로와 격려를 사람들의 기억을 보관하는데 부지런히 쓸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기 고

춋불 열기 모아 모두가 잘 사는 사회로



김대현
복지국가소사이어터 정책위원

멜서스는 그의 저서 ‘인구론’에서 인구증가 속도에 비해 식량생산량이 따라갈 수 없으므로 인구를 줄여야한다고 했다. 그 방법으로 성욕을 억제할 수 없는 무식한 하류계급을 잡고 더러운 곳으로 몰아넣어 전염병이 창궐해 죽게 하거나 전쟁이나 기아에 허덕여 인구를 인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의 주장은 이후 농업생산량이 인구증가보다 두 배로 늘어나면서 틀린 가설이 되었다. 이런 야만적인 발상을 한 멜서스라는 학자를 우리는 한때 고전경제학의 창시자인 애덤스미스의 반열에까지 올리고 그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환호하며 충실히 그의 경

제이론을 따랐다. 그로부터 200여년이 다되어가는 1995년 세계적인 실용주의자들이 미국의 유명 호 텔에 모여 인류의 미래를 진단한다. 고르바초프부터 세계적 석학, 글로벌기업의 CEO 등이 참여하여 3일 간 열띤 토론회를 개최한다. 그 결과 미래사회를 20대 80의 사회로 규정한다. 즉 21세기에는 20%의 노동 가능한 인구만 있어도 세계 경제는 돌아간다는 것이고 나머지 80% 사람들의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고민 아닌 고민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노동의 종말’을 쓴 제레미 리프킨 역시 이런 예측에 동의한다. 결론은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80%의 사람들에게 적당한 대중문화와 먹을거리만 던져주면 된다고 귀결되었다. 결국, 세상은 소수에 의해 움직여지고 그들에 의해 세상이 돌아가니 나머지는 적당히 먹여만 주면 된다는 그레도 벨스키 보다는 좀 더 나은 대안을 끝으로 3일간의 토론회는 끝났다. 지난해 대한민국에서도 고위 공직자 나환욱 전 교육부 정책 기획관이 민중을 개조시켜 표현하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했다가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결국 그 발언이 본인도 인정하듯, 취중의 실수나 실언이 아닌 우리사회의 소수 엘리트들이 바로 멜서스의 고전경제학부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까지를 맹신하는 교육을 받아온 결과 드러난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배운대로 말하고 행동했을 뿐 자신들이 무엇을 잘 못하는 지를 모르는 태도이다. 자본주의가 태동하고 수백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정된 국가자원을 소수가 독점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국가권력까지 차지하고 있으니 당연히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양극화식, 정글법칙의 경제학이 주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자. 지구 반대편의 북유럽의 나라들은 이미 1930년대 이후부터 이런 야만적인 불평등 경제체제를 거부하고 다수가 행복할 수 있는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유시장경제가 아닌 합의제 조정시장경제를 받아들여 결국 노동이 소외되는 게 아니라 노동우위와 분배정

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적어도 이들 나라는 일자리걱정, 노후걱정, 주거정만 걱정, 교육 보육의 걱정, 건강의로 걱정에서 자유로운 시민들로 살아가고 있다. 국가 역시 인간이 살아가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에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어느 시민도 소외되지 않게 지켜주고 있다. 각종 지표가 말해주듯 이들 나라들은 국민행복지수가 세계 상위권이며 삶의 질도 높다. 노동을 해도 비루하지 않고 삶을 여유롭게 즐기면서 살아가 수 있는 경제체제, 이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 수십 년 전부터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번 촛불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열기를 모아 현재 미국식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거부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해야 한다. 단지, 지도자 한 명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지도자가 되어도 우리의 삶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경제적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체제는 소수와 재벌 대기업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경제체제이다.

無 等 鼓

최근엔 달력이 귀하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말이면 벽걸이 달력이나 탁상 달력들이 주변에 많았다. 그중 괜찮은 것들을 몇 개 골라 돌돌 말아 집으로 가져가곤 했다. 그러나 요즘은 많이 달라졌다. 일단 원하는 달력 구하기가 쉽지 않다. 수십 달력은 몰때가 꼼꼼하게 적혀 있어서, 농협 달력은 큰 글씨와 앞달, 현재 달, 다음 달 등 3단 구성이라 한눈에 보기가 좋아 인기가 많았다. 은행이나 기업체에서 만든 달력이 줄어든 까닭은 경기 불황과 연관된다. 또 벽에 못을 박지 않아도 생활환경 변화와 함께 디지털 시대로 접어든 이유도 클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는 반대로 개성적이고 예술적인 달력은 눈에 많이 띈다. 최근 크고 작은새해 달력 3개를 선물받았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해인 수녀에게서 받은 새해에는 A4 용지의 절반 크기다. ‘시로 꽃피운 삶의 이야기’라는 제목이 붙은 이 자그마한 달력엔 다달이 한 편씩 모두 12편의 시가 실려 있다. 1월의 시는 ‘유리창’이다. “가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옷다 가 울다가/ 어른이 되고 삶을 배웠네...” 1부터 30 또는 31까지 7개씩 수

새해 달력 선물

자가 나열돼 있는 단순한 달력 기능을 뛰어넘어 매달 한 편의 시를 감상하는 재미를 안겨 준다. 최근 선물로 받은 불일암 달력도 있는데 손아귀에 들어가는 미니 달력이다. 사정 스님 판상좌인 덕초 스님이 짠 법전 작품이 시선을 끈다. 작품을 보는 이들은 촛불과 오체투지 등 불교적인 장면에 이끌려 사색에 젖기도 한다. 사진작가 김용운(전 교사) 씨가 만든 달력은 각별하다. 지난해 9월, 첫 개인전을 열었던 작가는 자신의 사진을 담은 달력을 소량 만들어 지인들에게 선물했

다. 불멸에 빛나는 매화 꽃잎과 겨울을 이겨 낸 붉은 동백꽃, 청보리 밭의 바람결, 빗꽃을 지게 하는 4월의 빗방울, 신록의 초록 빛깔 등 사정적인 사진들로 꾸며진 달력이다. 달력을 넘기다 보면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 달력 선물은 시간을 선물하는 셈이다. 선물 받은 달력에는 새해를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내길 바라는, 주는 이의 마음이 담겨 있다. 새해에 스마트폰 ‘플래너’(Planner) 대신 종이 달력을 보며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한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FAX 227-9600>	독자서비스국 <FAX 222-0551>
정 지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년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